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3월 1일 (화) 제 814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사순절
설교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가

<로마 6:23, 마 20:28>



최 화 식 목사 (나가노교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3월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삼일절이 있으며, 여기 일본은 3.11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형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모든 악과 죄,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과 죄, 고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에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험한 길을 안 걸으려고 합니다. 만약, 선택한 길이 가시밭 길이라면 절망하며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도 어린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곤욕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양 예수님은 가시밭 길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삯은 임금을 말합니다. 일하고 받는 돈이 임금입니다. 사망이 임금이라는 것은 죄를 위해 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위해 일했다는 것은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죽이거나 악한 일 등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여러가지 현상입니다. 죄의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올바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

고, 경험, 힘을 의지해서 자기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대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죄의 대가인 사망 때문에 예수님 목숨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대속물이나 목숨을 주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53:3)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시고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우리를 건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전국여성회

제23회 성경세미나 개최
아라이유키목사를 강사로 리모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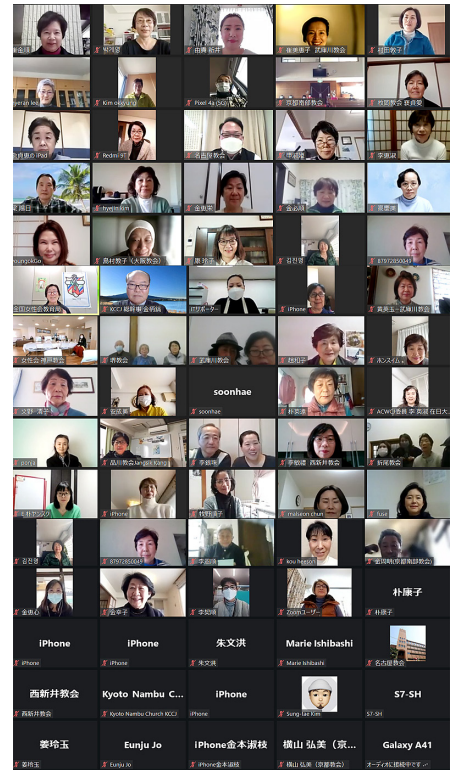
2022년 2월 12일(토) 13시부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국 주최, 제23회 성경 세미나를 리모트로 실시했다. 「주님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 With 코로나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는 교회여성」의 제목으로 강사로 아라이유키목사를 초청했다. 참가자는 112명이었다.

중착점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회에 있어 많은 제약에 얽매이는 부자유한 생활 가운데 여러가지 장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하게 도모할 수 없게 된 사회 변화를 실감한다. 아라이목사의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점에서의 전달하고 (말하고), 받아드리고 (듣고)

그 능력을 더욱 높여 깊이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교회에서 신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직장에 있어서의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국을 떠나 이국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한층 더 커뮤니케이션의 소중함을 실감했다. 회화의 기술은 물론, 언제나 성령이 지켜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대하고 잘 듣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신남열 교육국 국원)



청년회전협

청년 연수회를 개최
‘일상의 루틴’을 테마로 리모트로

2022년 2월 23일, 전국청년회협의회의(이하,전협)는 청년연수회를 개최했다.

연수회의 주제는 청년들의 ‘일상의 루틴’ (규칙적으로 하고있는 일)이었다.

참가자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성경을 읽고 있다’, ‘1년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가정에배를 드리고 있다’ 등의 자신의 루틴을 소개했고,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전에 했었던 루틴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소감을 말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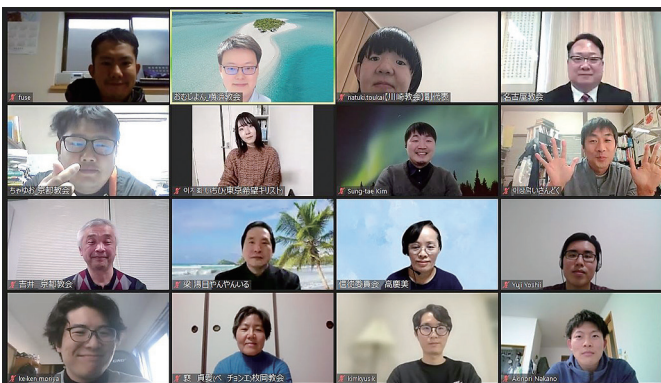
참가자는 각자 사진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옵저버(observer)로 참석한 목사님께 질문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목사님의 일상의 루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개회예배는 나고야교회 김명균목사, 폐회예배는 동경교회협력 목사 김성태목사가 담당해 주셨다.

전협 대표의 발제와 신도위원장의 메세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청년들이 코로나상황에서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예배와 신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수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전협은 계속해서 전국의 청년들이 신앙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교류와 관계형성을 이어갈 것이다. 전협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가능성과 시야가 넓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동시에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전협은 전국의 청년들과 협력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을 키워가며, 청년들의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전국장로회

제1회 회의를 ZOOM으로
미자립교회 장로 정년제 문제 등을 논의

지난 1월 22일(토) 20:00~21:00에 전국 장로회는 회장 김일환장로의 요청에 의해 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회장 김일환장로는 연간 6회 정도의 장로회 회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전국 장로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외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총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싶다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1부 경건회에는 총회장 中江洋一목사로부터 사도행전 5:12~16의 본문으로 <교회는 치유하는 장소>라는 제목으로,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기도의 교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2부는 5지방회 장로회 회장으로 부터 각각 보고를 받았는데, 관동에서는 大宮교회가 해산, 관서에서는 大阪平康教会가 해산, 서남에서는 무목교회 및 妙馬은혜전도소의 기도 제목 등, 각 지방회의 동향을 공유하였다.

계속해서 신도위원장 양양일장로로 부터 신도위원회와 여성회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협력 요청을 받았다. 또한 전체 회의에서는 미자립교회의 장로 정년제 문제를 생각하는 제안, 동경교회의 현황, 계속적인 과제로서 지방회와 개교회의 균형에 맞는 교역자 파견 및 사례비의 평준화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서기 신대영장로)

5지방회 교회여성연합회 정기대회 일정

○関東地方教会女性連合会

・日時: 3月21日(月) 10:30

・場所: 西新井教会

○中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

・日時: 4月12日(火) 11:00

・場所: 豊橋教会

○関西地方教会女性連合会

・日時: 3月24日(木) 10:30

・場所: 大阪教会

○西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

・日時: 4月7日(木) 13:00

・場所: 神戸教会

○西南地方教会女性連合会

・日時: 1年延期

2021년 크리스마스 헌금 보고 <2022년 2월16일 현재>

교회	金額 (円)	교회	金額 (円)	교회	金額 (円)
三沢	14,000	京都	50,000	広島	30,000
つくば東京	7,000	大阪北部	30,000	三次	3,000
東京	50,000	大阪	303,600	西部地方会合計	147,900
東京中央	10,000	大阪築港	5,000	宇部	10,000
川崎	10,000	浪速	20,000	小倉	40,000
横浜	55,000	大阪西成	20,000	折尾	20,000
横須賀	28,000	豊中第一復興	10,000	福岡中央	5,000
関東地方会合計	174,000	堺	35,250	博多	6,000
長野	10,000	関西地方会合計	473,850	西南地方会合計	81,000
千曲ビジョン	25,700	武庫川	31,000		
豊橋	50,000	川西	10,000	合 計	1,212,450
名古屋	240,000	明石	27,300		
大垣	10,000	水島	10,000		
中部地方会合計	335,700	新居浜グレース	36,600		

2022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대회

제13차 미국 포틀랜드 대회 The 13th Conference in Portland, USA

주제: “팬데믹 시대 교회 교육과 목회의 미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 11:1)

일시: 2022년 4월 18-20일 저녁 5시- 8시 (미국서부)
4월 19-21일 오전 9시-12시 (대한민국)

장소와 방식: 비대면 (ZOOM, 사전 등록 필수)

신청서 등록 바로가기 (<https://bit.ly/3hkoOkd>)

주제강연 1 | “복미 설문조사에 따른 팬데믹 상황의 교회”
김은주 교수 (아일리프 신학대학원)

주제강연 2 | “예술과 미학의 회복”
양성구 교수 (조지 폭스 대학교)

주제강연 3 | “교육, 목회, 예배 전방: 놀이를 중심으로”
김남중 교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주제강연 4 | “팬데믹 상황에서 설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은주 교수 (아일리프 신학대학원)

특별강좌 | “포스트 팬데믹, 메타교회가 온다”
이동우 목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신청서
QR코드



주 최: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The Council on Oversea Korean Churches for Education & Ministry
참가교단: 미국장로교(PCUSA), 미국개혁신교회(RCA), 해외한인장로회(KPCA),
캐나다장로교회(PCC), 호주연합교회(UCA), 뉴질랜드장로교회(NPC),
제일대한기독교교회(KCCJ),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대한예수교장로회(PCK)
문의: 변건을 목사 (geonyul.byeon@cst.edu) 이현재 전도사 (hyunjae.lee@cst.edu)

<公告> 2022년 총회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學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事務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募集人員: 3 名
- 支給金額: 年額 200,000 円 / 1 人
- 支給期間: 1 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 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學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長承認書
- 締め切り: 2022年4月30日必着 ※書類提出先: 總會事務局

釜めし 大統領

有限会社 エルシード
申 大 永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長老)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 3-8-13
銀座三丁目ビル 1F (松屋東館うら)
t: 03-6228-6922 f: 03-6228-6923
E-mail: pino@pinocosme.com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공개강연 연재 1

KCCJ・CCJ선교협력위원회 공개강연회(2021년12월9일)

죄책(罪責)을 지고 주님께로 (1)

吉高 叶 (요시다카 카노우) 목사(일본NCC의장 / 일본침례연맹市川八幡教会)

1.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선교 과제

이번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와 일본그리스도교회(CCJ)가 선교협약의 선교협력 프로그램 <공개강연회>에 초청되어 감사드립니다.

선교협약이라면, 양 교단의 선교협력 배후에는 과거의 침략전쟁에 가담한 교회의 회개와 그 회개에 근거한 새로운 협력관계, 화해의 과정으로서의 협력관계를 함께 걸어가는 이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죄책(罪責)」을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책의 고백은 한 번 하면 종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행보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일본 침례연맹도 전쟁책임에 관한 고백을 했지만, 지금의 삶의 방식과 모습에 대하여 묻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 목사로서

저는 1984년 関西学院大学 신학부를 졸업하고 兵庫県 伊丹市에 있는 침례교회의 목사로 시작했습니다. 학생시절에 가나가사키(釜ヶ崎)의 일용 노동자의 해방운동에 참여하여, 또 당시 전국적으로 달아온 <신문 거부 운동>에 참여하면서 외등법(外登法) 문제나 입관법(入管法) 문제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 東京 世田谷의 교회 목사로서 부임하고, 그와 함께, 외등법 문제와 싸우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외기협)의 사무국 일을 21년간 맡았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일본기독교협회의 회(NCCJ)의 서기를 6년, 계속해서 부의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를 바꾸어 1997년부터 16년간, 松戸市에 있는 栗ヶ沢교회의 목사, 그 후 6년간, 일본침례교연맹의 상무 이사(총무)를 맡았으며, 2019년6월부터 市川八幡教会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NCC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되어 다시 예규메니칼 운동의 '경기장'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2) 생명 환경이라는 「공통의 Common」

NCC의 이번 총회기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입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나 인권이라고 하는 선교 과제는 물론입니다만, 한층 더 「피조물의 보전」이라고 하는 환경 과제를 가지고 걸어 갑니다. 2021년 동일본 대진재로부터 10년의 고비를 맞이한 해입니다만, 대지나 해양을 계속 오염시키는 방사능은 아직도 그 엄청난 부(負)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뇌의 수렁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배경에는 폭주를 계속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생태계 파괴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어, 매년처럼 일어나는 이상기온·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자연재해 등과 함께, 그것들은 인간 세계를 위협하며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맥락, 생명의 환경의 맥락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회개하고, 겸손을 되찾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걸어야 합니다. 각각의 교파나 단체가, 이러한 생명 환경이라고 하는 <공통의 Common> 보전을 위해 함께 걸어가기기를 원합니다.

(3)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교회

우리 사회는 지난해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 감염 위기에 의한 긴급 사태 선언에 우왕좌왕해 왔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있을지 없을지, 언제 해제될 것인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켜면 감염자 수, 죽은 사람 수가 나오고 있으며 이제는 새롭게 오미크론이... 그리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할까 말까, 성찬식을 어

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계속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긴급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긴급 과제>에 확고하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 자문자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예배의 지속과 유지는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이 긴급사태 중에서 <긴급과제>로서, 이 사회에서 이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방법을 구하려고 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 속에서, 실로 너무나 큰 <긴급 과제>가 부상해 왔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자살은 예년의 2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영향이 누구에게 엄격히 다가왔는가?

그러한 가운데,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강제적으로 국외 퇴거시키는 입관법의 개악(改悪)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名古屋 入管에 수용되어 있던 위슈마 샌다마리氏의 '학살'이 보도되어 이주연(移住連)과 외기협(外キ協)의 부름에 응해 연일, 시민·종교자들이 일본 입관제도의 문제를 호소하고 개악을 저지하는 <국회앞 농성>에 참여해, 입관법 개악안을 폐안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슈마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입관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월 1일에는 미얀마 국군에 의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군에 의해 학살되었고, 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살던 마을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입는 옷 그대로 야산으로 도망치고, 코로나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침례교회 지도자들도 지명 수배되어 지금도 잠복과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침례교회의 목사들 중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재일 미얀마인들이 귀국할 수 없게 되어 난민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비자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 심한 궁핍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일본에 왔지만 일이 없고 살 길이 끊어진, 바로 긴급 사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우리 일본의 교회는 연결되어 왔는가?

(4) 発信이며受信의 <전도>

한편,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SNS나 YouTube 등, 인터넷을 통한 전도의 방법이 교회에 급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를 교회의 기회로'라고 말합니다. '내 위기를 내 기회로' '자신들의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모든 화살표를 자신을 향해 사고하는 이 '사고성의 이상함'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는 <전도>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다만 <전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만남이나 나눔의 측면, 다방면적인 교제의 사실이 정중하게 취급되는 것은 드물습니다. 어느 쪽이든, 전도는 발신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발신기>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전도란 발신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 교회에 이미 주어져 있는 <구원의 열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발신해야 한다 <구원에 관한 언설·논리>는 벌써 이쪽이 정해 가지고 있어, 그것을 발신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과 SNS에 의해 전달한다는 <발신 수단>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수신하는 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을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또는 교회에 앞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신하는 <수신기>로서 이해하는 그러한 사고와 인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같이 고령화 되고, 또 교세적으로도 작아지고 있는 것을 「수신기」로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